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4 4

지금 후쿠오카(福岡) 상공에 있습니다. 지진 재해 이후로 후쿠오카(福岡)는 네 차례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보니 다음 달에도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각지를 돌아보면 “응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거나 “블로그 보고 있습니다”라고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고맙고 따뜻한 네트워크 안에 싸여 있다는 것을 느끼곤합니다.

이렇게 격려해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할 수 있는 한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제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비일상적인 스케줄은 상상을 초월한 대지진이 일어난 직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떠받쳐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이렇게 다시 설수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월 11 일 이후의 도정은 언젠가 추억으로 이야기할 때가 오겠지요. 그 때가 곧 오게 될는지 아니면 먼 장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여기 오쿠타마(奥多摩)를 방문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지진 재해 이후인 3 월부터 이듬해까지 역경의 바람에 실려 어떠한 유량의 나날을 보냈는지를, 또한 캠프장관계 직원 분들이나 지역 분들께 얼마나 많은 신세를 지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며 이야기할 때가 오겠지요.

지금 이곳에서는 새로운 여행길에 오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새가 동지를 떠나는 계절을 맞이한 것처럼, 어떤 분은 다시 가족과 합치고, 또 다른 분은 아파트로 입주하시며 각각의 출발을 분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봄에 만남과 헤어짐이 있다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집과 고향을 잃고 나서 이곳에 겨우 도착한 한분 한분이 이제까지 멀고도 험난했던 피난 길에서의 있었던 일들을 하나 둘 상기하며 서로 이야기할 날은 오겠는지요?

그리고 이제 과연 이 여행은 어디까지 계속되겠는지요. 설마 끝 없는 여행이라고는 하지 않겠지요.

누구나 마음 한 구석 깊은 곳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한숨 쉬고있습니다.

돌연히 찾아온 생각지도 않았던 격동의 나날을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기도합니다. 지금 이 양무리는 세번째의 큰 기로에 서있습니다. 각자 동지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3 월의 졸업식과 더불어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전원이 삼삼 오오 짝을 지어 각자의 귀로에 오르는 지진 재해 졸업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아직 경험한 적이 없는 지진 재해 피난민으로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도 아이들과 손자들을 맞이할 집을 잃었기 때문에 '어서 오너라'고 팔벌려 맞이할 수도, 맛난 음식을 차려놓고 한 상에 둘러앉아 오순도순 얘기하며 손자들이 설요리를 한 입 가득 물고 맛있게 먹는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없는 더없이 귀중한 시간과 공간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이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 요전에 어느 분이 노견과 함께 한가로이 산책하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애견과 함께 산책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너무나도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밀려들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 애견 파피가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쇼핑하러 외출하거나, 양지바른 뜰의 한 구석에서 화초를 가꾸거나,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상을 준비하는 이런 흔한 일상의 풍경들이 하나 하나 그림고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한 해를 보내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일년을 무심코 되돌아보는 순간 막다른 벼랑끝으로 생각이 몰려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생각을 골똘히 하지 말고 기분 전환하면서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연말을 맞이해야겠습니다.

언젠가 손자들에게 지진재해에 대한 얘기를 들려준다면 이런 얘기는 어떻게겠지요.

매달 초에 시에서 방충소독대가 기습해와서는 화염방사기로 캠프장을 구석에서 구석까지 가차없이 계속해서 분무를 뿜어내는 이야기를 우습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습방문은 언제나 우리들이 거의 잊혀져갈 때 쯤에 오곤합니다.

마치 공습 경보 같아서 당초에는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번 세번 반복되다보니 과연 우리들도 대처할 방법을 터득하고는 재빠르게 각자 방의 창문을 닫으러 달려갑니다.

저는 즉시 자신을 리더로 한 독무대를 멋대로 설정해서는 마치 영화의 무대촬영이라도 하듯 "도대체 이건 또 무언가"라고 중얼거리며 마치 지진 재해 서바이벌에 대해서는 이미 터득한 몸이라는 듯이 초를 다투는 듯한 동작으로 재빨리 자신의 방갈로에 몸을 날려 침대를 떠메고 3 층까지 뛰어오르며 작은 창문까지도 완벽하게 닫고는 다시 원숭이처럼 몸을 폴짝 날려 내려서서는 그 누구의 칭찬도 없지만 여봐란 듯이 똘지

모르는 이상한 만족감에 빠집니다.

생각해보니 이 이야기는 손자들에게 해줄만한 애깃거리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나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차례의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에 대한 것이라면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라서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먼 미래에 손자나 증손자들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대한 지진이 있었을 때 지도로는 이 장소에 살고 있었단다. 그리고 모두들
필사적으로 달아나 여행을 시작했단다. 매일 괴롭고 슬펐지만 가끔은 기쁜 일도
있었는데 지금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단다'라며 이야기를 들려줄 날이 오겠는지요.

아직까지 불투명한 연말연시이지만 성큼 다가올지 모르는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스스로의 기분을 달래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싱글벙글하기도 하며 밝은
표정으로 올해를 극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후쿠오카(福岡)~하네다(羽田)편 상공에서
12 월 3 일(토) 사토 아키라(佐藤 彰)